

신학과

| 이재준(11학번)

THEOLOGY

아마 '신학'이라는 전공 이름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십자가나 엄숙한 성당과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거나 "그게 뭐지?"라는 물음을 가지기 쉬울 겁니다. 혹은 종교라는 단어가 어렵듯이 떠오르기도 하겠죠?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은 종교를 다루고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공식처럼 명확한 답이 도출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 신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신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성경, 예수님 등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교회, 성경, 예수님 등은 신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 또한 신학의 넓은 스펙트럼 중 일부일 뿐입니다. 신학은 성서, 전통, 경험, 이성 등을 통하여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신' 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탐구하며 더 나아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실존과 역할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신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신'의 뜻과 그의 사선이 향한 '인간'에 대하여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결코 저 멀리 있는 세계만을 바라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초월적 세계를 마음에 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를 꿈꾸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항상 우리 사회에서 고민하는 인간, 윤리, 삶,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철학, 사회학, 문학, 사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학문과의 열린 대화를 지향합니다. 특히 연세신학은 종합대학의 특성상 신학과 다른 학문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단순한 인문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분명히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신학을 함에 있어 '신앙'과 '신앙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과 '신앙 공동체'가 없는 신학은 반쪽짜리 신학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신학의 학문적 관점과 신앙의 관점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신학과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구약, 신약)를 공부하는 성서학, 이성을

바탕으로 신학의 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조직신학, 교회의 역사를 조명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의 전통과 발자취를 공부하는 교회사, 신학의 가르침을 보다 실질적인 삶의 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신학(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의 영위를 돕는 상담코칭학, 차세대 교육을 연구하는 기독교 교육학, 선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하는 선교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모두 '기독교'와 '신학'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며 모두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Q&A

신학과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과는 종교적 이유로 입학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과의 특성상 신학실천, 신앙수련회 등 신학 공동체의 일상에 기독교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기다리지만, 신앙은 없지만 신학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있는 학생도 환영합니다.

신학과를 졸업하면 모두 목회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신학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필수학문이지만 단순히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나 신학자 등의 길을 가지만 최근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계통의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세신학을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들 중에서는 방송, 기업, 연구원, 사회복지, 문화예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오는 학생은 많지 않은가요?

교단신학교에 비해 재학생 비율로 계산해 본다면 목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길이나 신학자의 길로 가는 학생의 비율은 상당합니다. 연세신학의 특성상 목회자의 길을 가는 학생과 신학자의 길을 가는 학생의 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연세신학 출신의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학생 중 상당수의 학생이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학교에 오신다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목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산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진솔하게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교단 신학교에 비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연세신학은 초교파 학교로 특정 교단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기에 더 깊고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단 신학교에 비해 더 이성적이고 학문적으로 신학에 접근합니다. 또한 종합대학 안에 속해 있기에 교양수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문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이중전공, 부전공 등을 통하여 다른 전공을 신학과 함께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과대학만의 자랑이 있다면?

신과대는 다른 단과대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선후배간에 친밀하게 교제할 기회가 많습니다. 매 학기 전체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며 대화하는 공동체 시간이 있고, 11월에는 모든 신과대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1학년 때는 '튜토리얼'이라는 방식으로 담당 교수님과 몇 명의 학생이 팀을 만들어 가끔씩 만나 교제하고 지도를 받습니다.

또한 신과대는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자치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생사회의 일을 담당하는 학생회, 신과대학 학술동아리인 연세신학학술연구회와 노동과 사목 연구회, 신과대학 연극 동아리인 종교극 예술 연구회, 찬양동아리인 알파와 오메가, 밴드 동아리 가미, 축구동아리 흥가네 FC, 농구동아리 스피라운, 여학생회, 예비역 학생협의회, 편입생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아리는 아늑한 동아리방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나 신학자 등 계속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부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또한 꼭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절대자', '초월자'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필수과목으로는 성서학의 기초를 배우는 구약의 이해와 신약의 이해, 이론신학의 기초를 배우는 신학의 이해 1, 실천신학의 기초를 배우는 신학의 이해 2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과목으로는 성서학에 구약신학, 신약신학, 공관복음서 해석, 성문서 해석 등이, 조직신학에 조직신학, 문화신학, 종교철학 등의 과목이, 교회사에 초대, 중세, 현대교회사 등이 있고 실천신학에 목회상담학, 돌봄·상담·코칭, 기독교 교육론, 종교교육과정, 선교학개론, 21세기의 기독교와 선교 등의 수업이 열립니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 윤리, 종교와 예술 등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 고민해 보는 수업도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등 수준 높은 고전 언어 수업도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목회자(지역교회, 사회단체, 중고등학교 교목, 군종 목사 등), 신학자, 신학교수, 선교사, 언론인, 사회복지 관련 직종, 목회 심리 상담사, 시민사회 기구, 사회적 기업, 예술가 등이 있습니다.

Plus+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사회와 정의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고민하고픈 여러분, 신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